

미·일 동맹속 '국제화' 성격 강화

최근 군부 동향과 향후 정치구도

I. 문제의 초점

6공화국집권 3년간 전개되었던 정치는 지배세력과 보수야당 및 민족민주진영 간의 정치역학을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6공화국의 정치국면을 정리해볼 때,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은 이와 같은 정세추이가 어느 일방의 결정적 우세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정세추이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배세력의 최종적 대리자로서 정치에 개입한다. 군부의 정치개입이 이러한 특수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국면이 지배세력에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군부는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정치역학의 이러한 유동성에 기초하여 정세를 규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정세추이가 어느 일방의 결정적 우세로 귀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정세추이는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치적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배세력의 최종적 대리자로서 정치에 개입한다. 군부의 정치개입이 이러한 특수상황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국면이 지배세력에 유리하게 전개될 경우 군부는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보수연합' 통해 민간정부 들어설 듯 지배구도변화 軍정치개입 약화시켜

최근 군부 동향과 향후 정치구도

입은 당분간 정치변동 직접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군부의 동향은 정세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적 차원의 체제 간 대립이 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의 형태로 외화되고 있는 한국 정치구조에서 대립의 구체적 양상을 규정하는 군부의 동향이 불가피하게 상당한 정치적 파급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물

미 사회적' 기록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며 군부가 한국정치변동의 결정적 변수 중의 하나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II. 군부의 동향과 향후 전망

5·16쿠데타 후 군부는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정치체적으로 활동하였으나 그 비중은 경향적으로 감소하였다. 역대 정부각료 중 군 출신의 비율변화는 이러

핵심인 이른바 신주류 친위세력들은 대체로 기술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각에서 6공화국정권을 결국에는 민선민간정부로 이행될 과도기적 정권으로 규정하는 하나의 근거로 바로 이러한 권력핵심부의 변화상을 든다.

한편 군부의 외형적인 후퇴와 더불어 군부의 사회적 기록권은 현상에서 정지된 채로 있다. 88년 9월 현재 정부부처장관의 임직률 중 32.1%가 군장성 출신으로 충원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각종 경제단체와 대기업 및

사회단체에도 이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군부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정치군부 상층간의 이해관계망이 이들을 독자적인 이익집단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군부가 갖는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관철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어느 정도 상대화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의 관철방식 또한 직접적이기 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배방식이 더욱 세련화되면서 군부가 정치의 배후로 후퇴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만이 6공화국에서의 군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역한 민자당이 다수의 힘으로 날 치기통과시킨 국군조직법제정

과 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등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나듯이 한국군부의 정치적 성격은 미국의 대한전략구도에 의해 중증적으로 규정되고 있다.

군부에 의한 직접적 지배보다는 범 보수세력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 보다 안정적인 수 있다는 미국의 판단은 대 제3세계전략인 저강도전략과 보수연합구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구도는 한국군부의 정치적 행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부가 다시 돌발적으로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어렵게 구축해놓은 미국과 지배세력 전체의 이해관계구조를 혼란시킬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국군부가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남북3각체제의 확실한 하위 동맹군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 일본, 한국간에 전개되고 있는 각 합동군사훈련과 정보교환체제의 구축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매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국내적으로는 정치로부터 후퇴하여 국제적으로는 더욱 긴밀하게 자본주의전선의 이익에 복무하는 국제군부의 변화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군부동향의 핵심인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후원아래 있는 6공화국은 그 힘을 이용해 집권 초기에 나타났던 군부내의 갈등요소를 대부분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향후의 정세에서도 군부는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관철시키는 한편, 고유한 자기영역에서의 이해보장과 기록권을 유지하면서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국제적 독자적인 자기영역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고 성 국
(고려대강사·정치학)

지역신문의 위상과 역할

지역신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운동에 기여하지 못하고 상업성에 치우치거나 관련 소식지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지역신문들이 지역발전과 지역민주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출발했던 당시에 비해서 현저히 달라진 위상이 아닐 수 없다.

대중매체를 통한 기존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특성은 일방화, 획일화, 거대화, 집중화, 독점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되는 대중매체의 이러한 속성들은 자연히 독자들의 의사와 견해를 모색해 나가고 수의 권력자나 기업가의 입김속에서 반민주적이고 반독자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수 밖에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오랜 중앙집중적인 정치, 경제, 문화 유형에 익숙한 상황에서 언론의 중앙집중화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언론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중앙집중적인 획일화를 저지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기초

규모 지역화, 동질화에서 특성화, 일방적 관계에서 쌍방향 관계유형으로, 중앙집중화에서 지방분권화로 가는 실제적인 과정과 다름이 아니다.

이제는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지역중심의 문화의식이 보다 강조되었다는 차원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통한 적극적 정치참여 욕구증대로부터 비롯된 영향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다. 아울러 전국민적 정치투쟁에 비해 지역주민의 구체적 삶에 관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지역신문은 정치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지역중심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발전도모, 인간성 회복, 편리한 지역민의 삶 개발, 건전한 지역주민의식의 고양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언론운동의 성격을 견지할 때 제 역할을 다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최근의 지역신문들을 성격별로 나누어 네가지로 유형

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지역신문독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운동성이나 사상성을 강조한다는 당위 때문에 거칠고 어설픈 문화를 제작하는 것은 진정한 독자를 위한 자세가 아니다. 지역신문의 편집·제작기술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별·유형별 홍보매체 담당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워크숍을 갖는 등의 방법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주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독자중심의 신문발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출신자 중심의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존 대중매체의 병폐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신문에서의 독자중심적 자세는 필수적이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다.

주민의식조사, 주민생활 실태조사, 기존신문 구독 행태 조사, 주민운동에 관한 태도조사 등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를 수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지역신문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나친 사상성·운동성·선진성의 강조가 대중성의 결여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관련 소식지 전략 위험

중앙집중적 문화현상 발전 저해 초래 지역민주화 운동 매체로서 위상정립 시급

로 한 소규모신문 발전현상이 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전후해서 활성화되어 왔다. 중앙집중적인 전국구에서 비해 지역신문은 시, 구, 동 또는 마을 단위의 소규모 신문으로서 Community paper, Town paper 등으로 불리워진다. 이러한 지역신문의 발생배경에는 대중매체의 기술적, 정치적 특성 변화에 따른 매체환경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전달의 특성은 점차 획일화, 신속화, 통일화, 규격화의 경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 중심의 정보선택권이나 정보집권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거대정보의 무조건적 일방수용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가주의, 중앙집중주의로 대변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흐름의 양태는 모든 국민이 실제 삶의 터전에서 느끼고 해결해야 하는 지역문제로서의 위치와 방향각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정보소통의 구조적 결함은 결국 인간성상의 병폐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점에서 지역신문 발행을 통한 지역언론운동은 획일화에서 개성화·다양화로, 거대화에서 소

회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로 광고활동을 통한 상업적 이익에 목표를 두고있는 '상업적' 지역신문, 특정 정당인 등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적 입장을 신문을 통해 표명하거나 계도하고자 하는 '정당'의 지역신문, 그리고 지역사회의 생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생활정보지향적' 지역신문' 등이 있다.

이중 우리의 관심은 세번째 유형인 '민주지향적 지역신문'인데 물론 이 범주안에는 건전한 의식과 올바른 운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지역운동조직에서 발간하는 크고 작은 신문들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단계 지역신문의 특성과 문제점을 기초로 구체적인 과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언론운동의 차원에서 지역신문이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민주운동세력과 연대활동을 지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문제작에 필요한 최소

야 할 필요가 있다. 운동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와 수단적 또는 과정적 목표에 따른 신문제작방향을 적절하게 조화시켜 무리한 내용으로 일반주민의 반감이나 저항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정기독자 및 후원조직을 결성하여 신문의 경제적 지반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도 독자적인 신문후원조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단 발행을 시작한 지역신문은 정기적 발행일자를 어기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 현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신문을 발간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 모두가 지역민주화운동 매체로서의 지역신문이 올바른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김 기 태
(서강대강사·언론학)

朔風

현장과 동떨어진 지식인의 패배주의

4월혁명 기념비 주위가 꽃들로 장식될 때면 문득 4월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끔 테이트죽들이 찾아들면 그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 둘씩 머물기 시작해사 비탈에 새겨진 '이기대'라는 이름이나마 생각하게 된다. 어느 때 그 비는 일년에 한번 사람을 찾기위해 눈이오나 비가오나 그라리에 웅크리고 서있는 듯 한 노닐을 받기도 한다. 타성때문이라라. 때때로 귀중한 고향마저도 순식간에 잊고 살아가는 타성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어느시인은 혁명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아니라고 절규했는가 보다. 혁명은 진정 외롭고 고독한 것인가?

노동운동을 잠재우는데 있어선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재벌이 산성이다. 특히 수원전차단지는 공장 앞 숲

는 일 하나 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에게나 혁명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다. 오히려 지배자들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회의감을 심어주기위해 노력할 뿐이다.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주고자하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다. 기업과 경찰관을 상대 시키기에는 노동자들을 너무 무능한가(?) 한 듯해 미안하든지 산업법, 임금법로 정부 각 부처까지 배정해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을 자본가에게라는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들은 한문의 이윤이구나 더 남기기위해 부단 하도 노력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노동이란 기본적으로 생산적인

것이므로 노동자를 억압하기 위한 그들의 노동이라기 보다는 군대말로 잔대가 리 굴린다든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까?

옛부터 산이 높으면 물도 깊다고 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나는 법이고 하지만 이러한 필연적 당위성에 현실을 내 말릴 수는 없다. 그러한 무책임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민중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지는 않았는가?

노동부문에 대한 지배전략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올바른 인식만 이 실천에 있어 강력으로 외화될 수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노동운동을 탄압한다고 불온한 터트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지배자들의 호풍소리를 들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때다.

(光世)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 12명 정원/강사진원 석·박사출신 미국인/12명(한성) 미국 생활영어 · 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 · LADO회화

ENGLISH영작, TIME·영어순화(독해) · TOEFL · 종합영어 · 고득점 TOEFL종합반 GRE·GMAT · 문법·영어회화 기초 VOCABULARY·AFKN회화·TOEFL L/C·문법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일본어 · 표준일본어 · NHK 일본어회화 · 러시아어 · 러시아어 회화 프랑스어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 · 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훈련된 최신허교수법 · 외국어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용강의실 · 수료증취득·과학적이고 성실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274-4000

다들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길 515-4020

파고다 외국어학원

사 라 산

◆학위논문 레포트
◆통계자료 마스터
※레이저출력
※소프트웨어 개발
◆학회지 편집인쇄

(위치)
경희대후문
후문
사라
외대
←청량리
→휘경역

965-3477
968-4718
(최 형 숙)

AN OUTLINE OF ENGLISH SYNTAX 柳津教授著

英語構文論

구문도해

양장본 ₩ 8,600

TOEFL·VOCABULARY & TOEIC이 백을 5개 전에 SYNTAX 5월형 도해반 1년 하라는 권유하는 지도교수의 공인된 추천을 받았을 의미하는가???

지상강의서 기초·영어문법 ₩ 5,800

●아무리 Conversation이 중요해도 ●아무리 Listening이 중요해도 영어의 진보적이며 과학적인 지상강의서 기 초구문론으로부터!!!

百萬社 266-8304

日本留學

日本留學에 뜻을 두신 분에게!!

학원 TRUST ACADEMY는 慶熙大學의 日語日文學科 / 科代表

만을 통해서 학원 TRUST ACADEMY가 줄 수 있는 모든 特惠를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特惠보다 더 중요한 신뢰(TRUST)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 주시면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 日語日文學科 / 科代表

서울역 광장 아래 4호선 전철출입구앞 (02) 702-6737/8